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5. No. 2, 2004

한의학과 불교의 생태학적 고찰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Study of ecology on Buddhism and the traditional korea medicine

Byung-Soo Koo
Dep.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eoul, Koera

Abstract

1. It is man that plays a important role in doing harm to ecology. So human ought to understand ecology and develop their mind considering a ecology through practicing Noble eightfold Path(八正道) austerities.

2. With a view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t is accomplished the circulation between human and heaven and earth by Qi. And then these are inter-transformed essence, Qi and spirit and carry out unification themselves by coexisting with university.

3. I consider 'Well-being' is man-centered thinking countering to the view of ecology. Then the health of body and spiri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life harmonizing with nature incidentally.

4. It is need for realizing that man and nature have the mercy of Buddha in order to purify a ecosystem and our human society through practicing austerities and meditation.

5. Spirit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thing on Buddhism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ased on Orientalism. The purification of human mind is very important for maintaining of a ecosystem through practicing austerities and meditation.

※ 위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교신저자: 구병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37-21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2-3416-9734, E-mail. gubs@hitel.net
◆ 접수: 11 / 6 수정: 11/13 채택: 11/16

Ⅰ. 서 론

Ecology라는 용어는 독일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른스트 헥켈이 1866년에 생각해 낸 것으로, 본래 가정과 유지 운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oikos와 학문과 이론을 뜻하는 logos의 어원을 갖는다. 오늘날의 생태학도, 지구라고 하는 큰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의 상태 및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을 의미하고 있다[1].

오늘날 지구는 인간 위주의 이기주의 사고로 자연의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자연의 재해가 서서히 나타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는 욕망은 별 차이없이 비슷하지만, 지금 인간의 마음 상태는 현대인이 공유하고 있는 이기문명이나 기계 및 살상무기로 인하여 자연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야기되는 피해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든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자연을 파괴하거나 공존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인간 위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결국에는 相滅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을 극복하는 사상은 불교나 한의학에서 찾을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둘다 공존과 相互同根이라는 사상을 근거에 두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이론은 도교 유교 불교 및 동양사상을 총체적으로 융합되어 天人合一 사상을 근저에 두고 있고, 불교는 나를 비롯한 생명의 상호의존(緣起)와 자비관을 바탕으로 自他 모두 살리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와 한의학의 사상을 살펴,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할수 있는 방법논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자연스러운 생태학 요건에는 자연(天 地)과 인간이 조화롭게 구성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天과 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이다. 옛날보다 지금은 인간의 心性에 따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앞으로 나타날 불행 역시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의 환경 상태가 인간의 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서로 상호의존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찰하고자 한다.

1. 인간에 대한 고찰

1) 한의학에서 본 인간에 대한 이해.

<素問: 寶命全形論>에서는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岐伯曰 夫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 "이라 하여, 하늘의 기운(天)과 땅의 기운이 합쳐진 것을 인간이라 하였다. 이 편에서는 인간이 천지의 사이에서 생겨난 까닭에 氣血의 虛實이 천지의 음양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잇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교류에 의하여 생긴 天地合一에 의하여 생긴 존재로, 인간안에는 하늘과 땅의 구성요소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지변화의 법도에 따라는 것이 인간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으나, 인위적으로 천지의 순리 변화에 이상을 초래하면 그 禍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좀 더 세밀히 인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精 氣 神 血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러한 사상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특히 精 氣 神을 三寶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들 三要素는 本元에 있어서는 混合無間한 一炁의 상태로 無形이요(先天), 이미 작용되어 형상화하면 비록 완전분리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편차에 의해 三者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2]. 神은 하늘의 특징을, 精은 땅의 특징을, 氣는 사람 즉 중화의 특징을 갖는다. 元氣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이것이 인체에서 셋으로 분화되어 서로 밀접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神을 중요시하였는데, 이

는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며, 神 즉 정신을 인간의 핵심적인 본질로 간주를 하였다[3]. <東醫寶鑑, 內景篇 卷之一 身形>의 '保養精氣神'에서는 " 臞仙曰 精者身之本, 氣者神之主, 形者 神之宅"이라 하였는데, 반드시 修身을 통하여 삼자가 끊임없이 운행됨으로 생명현상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형이상과 형이하의 요소를 두루 갖춘 존재였다. 허준은 형이하의 인간은 의학에서 그리고 형이상의 인간은 유학에서 다루어진다고 보았다. 먼저 형이하의 조건들인 精 氣를 갖추게 되면, 그후부터 형이상의 작용(지각) 즉 神을 조절하는 수신이 필요한 것이고, 修身은 養育과 養神을 의미한다고 하였다[4].

<千金要方, 一卷 診候第四>에서 "經說 地水火風, 和合成人. 凡人火氣不調, 擧身蒸熱 風氣不調 全身强直 諸毛孔閉塞, 水氣不調 身體浮腫 氣滿喘粗, 土氣不調 四肢不擧 言無音聲. 火去則身冷, 風止則氣絶, 水竭則無血, 土散身裂. 然愚醫不思脈道, 反治其病, 使臟中五行共相克切, 如火熾燃, 重加其油, 不可不愼. 凡四氣合德, 四神安和, 一氣不調 百一病生, 四神動作 四百四病同時俱發."이라 하였는데, 地 水 火 風이 화합을 하여 人身이 되고, 무릇 火氣가 부조하면 온 몸이 증열하고, 풍기가 부조하면 전신이 강직해지며 모든 모공이 폐색하며, 水氣가 부조하면 신체가 부종하고 기만하여 기침이 거칠며, 土氣가 부조하면 사지가 움직이기 어렵고 말을 하여도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火가 없어지면 몸이 차고, 風이 그치면 氣가 끊어지고, 水가 다하면 血이 없어지고, 土가 흩어지면 몸이 갈라진다.--- 四氣가 德에 합일하면 四神이 평안해 지고, 氣가 조화롭지 못하면 백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5]. 손사막은 佛醫의 四大 이론과 음양오행설을 통합하여 인용하고, 병은 스스로 생겨나고 자신에 의해서도 생겨나니, 반드시 몸과 마음을 경계하는데 힘을 써 항상 선행을 닦아야 한다 등은 바로 전형적인 불가의 '緣起' '因果應報' 사상이다[6].

<外台秘要方, 卷第二十二 叙眼生起一首>에서는 "身者 四大所成也. 地水火風 陰陽氣候 以成人身 八尺之本 骨肉肌膚 塊然而處 是地大也, 血淚膏涕津潤之處 是水大也. 生氣溫暖 是火大也. 擧動行來屈伸俯仰 喘息視瞑, 是風大也. 四大假合 以成人身 父母精血 是斯增長而精成者也"라 하여, 이러한 四大의 거짓으로 합해서 人身을 생긴다고 하였다[7]. 또한 <東醫寶鑑, 內景篇 卷之一 身形>에서 " 釋氏曰 地水火風和合成人 筋骨肌肉 皆屬乎地. 精血津液皆屬乎水. 呼吸溫暖皆屬乎火. 靈明活動皆屬乎風. 是以風止則氣絶, 火去則身冷 水竭則無血, 土散則身裂. 上陽子曰 髮齒骨甲假之于地, 涕精血液假之于水, 溫暖燥熱假之于火, 靈明活動假之于風, 四大假合而生也. 地之盛也, 骨如金. 水之盛也, 精如玉. 火之盛也, 氣如雲. 風之盛也, 地如神."에서도 불교적인 내용을 가감히 인용을 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假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구조물이 조립이 되어 결국에는 해체되는 의미로 농축시키고 있는데, 단지 사대요소(地水火風)가 因과 緣에 따라 모였다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동의보감에 불교적인 것을 발취하여 편찬한 것은, 외부적인 여건 특히 중국의 사대주의 입장에서 탈피된 것으로 볼수있는데, 이는 융합적이고 자주 독립적인 면을 나타낸 부분이다.

2) 불교에서 본 인간에 대한 이해

불교의 인간관은 육체와 정신의 복합체이며, 五蘊 중 色(몸), 受 想 行 識(4가지는 정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緣起의 所生일뿐 허망하고 참된 것이 아니다. 불교는 몸의 집착을 부정하였지, 몸 자체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인간을 地水火風인 四大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초로 四大說을 번역한 현존하는 책은 孫吳시기에 天竺의 승려인 竺律炎과 支越이 같이 번역한 佛醫經이 있다[8].

<佛說佛醫經>에서, "人身中本有四病, 一者地二者水, 三者火, 四者風, 風增氣起, 火增熱起, 水增寒起, 土增方盛, 本從是四病. 起四百四病. 土屬身. 水屬口, 火屬眼, 風屬耳 火少寒多目冥(사람의 몸 가운데는 본래 4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地이고, 둘째는 水, 셋째는 火, 넷째는 風이다. 風이 증가하면 氣가 일어나고, 火가 증가하면 열이 일어나며, 水가 증가하면 한이 발생하고, 地가 증가하면 힘(力)이 왕성해진다. 본래 이 4가지 병

으로부터 404병이 발생한 것이다. 土는 몸에 속하고, 水는 입에 속하고, 火는 눈에 속하고, 風은 귀에 속하는 것이니, 火가 적고 추위가 많으면 눈이 어두어 진다)" 고 하였다[9].

<圓覺經>에서는 "我今此身四大和合 所謂髮毛爪齒皮肉筋骨體腦垢色皆歸於地 唾涕膿血津液涎沫痰泪精氣大小便皆屬於水 暖氣歸火 動轉歸風四大各離 今者妄身 當在何處 卽知此身畢竟無體 和合爲相 實同幻化 四緣假合 妄有六根 六根四大 中外合成 妄有緣氣 於中積聚似有緣相假名爲心(지금의 이 내몸은 4대가 화합을 한 것이다. 소위 髮 毛 爪 齒 皮 肉 筋 骨 體 腦 垢 色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土으로 돌아가고, 唾 涕 膿 血 津 液 涎 沫 痰 泪精氣 大小便은 모두 水로 돌아가며, 暖氣는 火로 돌아가고, 움직여 전환을 하는 것은 風으로 돌아간다. 4대가 분리가 되면 이제 妄身은 응당 어느 곳에 있어야 하나? 곧 이 몸이 없음을 알수가 있다. 4대가 화합을 하여 相이 된 것이니 실제로 幻化와 같다)" 고 하였다10).

<摩訶止觀 卷第八>에서는 "夫有身卽是病, 四蛇性異 水火相違 鴟梟共樓 蟒鼠同穴 毒器重擔 諸苦之藪 四國爲隣 更瓦侵毁 力均則暫和 乘虛則吞併 四大休否 比喩可知 諸佛問訊法云 少病少惱(몸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병인 것이다. 네 마리의 뱀의 성품이 다른 것으로 水와 火가 다르고 올빼미와 부엉이는 같이 살고 이무기와 쥐는 구멍을 같이한다. 독을 담은 그릇으로서 무거운 짐이며 모든 괴로움의 숲이다. 네나라가 서로 이웃하여서 더욱 서로 침범하고 훼방하되, 힘이 균형되면 바로 잠시 화평하다가도 허한 때를 타서 바로 합병하여 삼킨다. 사대의 휴식 여부는 이 비유로서 가히 알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물으시고 찾으시는 법에서 말씀하셨다. 잠시 병환인가 조금 괴로운가." 라고 하였다[11]. 인간이 몸이 있으므로 인하여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四大(地 水 火 風)의 힘 균형이 비록 잘 조화가 되어도,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有形의 物體가 모두 極微의 집합체라면 만물의 體性도 또한 極微의 집합체라야 한다. 각각의 體性이 다른데, 그 성질의 다른 까닭을 설명한 것이 四大說이다. 地大는 堅固의 성질이고, 만물은 이 성질로 彼此抵抗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水大는 濕潤의 性으로, 萬物은 彼此引接하여 飛散하지 않는다. 火大는 溫濕하니 만물은 부패를 방지하고 調熟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風大는 行動의 性이 있고, 萬物은 生長 혹은 運動할 수 있는 것이다[12].

2.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인 고찰

1) 한의학에서 본 天 地 人(三才)의 관점에서 고찰

인간은 자연 속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天 地와 더불어 3才를 이루는 고귀한 존재며, 또한 자연을 이용하거나 자연에 도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하나라고 생각하였다[13].

<靈樞, 邪客篇>의 내용을 <類經 上, 三卷 臟象類>에서 재차 인용을 하였는데, "黃帝問於伯高曰 願聞人之肢節以應天地奈何 伯高答曰天圓地方人頭圓足 方以應之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音 人有五臟--- 此人與天地相應者也" 라 하였다. 황제는 伯高에게 四肢百節이 天地와 應하는 지를 물어보았을때, 그는 일일이 인체의 각 부위와 천체나 땅을 비유하여 마직막에는 "人與天地相應者也" 라고 하였다. 이는 생태학적으로 보아도, 일찍이 天이나 地에 대해서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정복이나 파괴를 통하여 인간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小天地라고 정의를 하였다. 인간에게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인을 갖고 있으며, 인간과는 서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공존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朱丹溪의 <格致餘論, 夏月伏陰在內論>에서는 "天地以一元之氣化生萬物, 根于中者 曰神機, 根于外者 曰氣血 萬物同此一氣 人靈于物 形與天地參而爲三者 以得其氣之正而通也 故氣升亦升 氣浮亦浮 氣沈亦沈 人與天地同一橐籥" 라 하여 사람과 천지는 동일한 풀무라 하였는데, 풀무에 대한 언급은 老子 <道德經, 第五章>에도 "天地之間其猶橐籥乎" 라 하여, 이는 인간과 자연은 떨어질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氣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天地의 氣의 변화와 같은 氣의 변화를 나타나는 것을 풀무에 비유하고 있다. 天地人 三才醫學 模式과 1991년에 생태체질학(encological constitutionology)을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天人合一 사상이 생태학의 주 사상이며, 환경계통(天,地)과 人의 상호관계를 중점으로 한다. 또한 그는 인류의 질병 근원은 人과 天 地 및 타인과의 상호관계가 문란하여 인체의 내부기능이나 대사 문란하게 된다. 인간이 생태환경을 파괴하면 환경은 필히 장차 인간에게 보복을 할것이라고 하였다[14].

또한 앞의 天 地 人에다가 時를 첨가하여, 내경의 天 地 人 時 의학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내경이 이미 天 地 人 時의 통일관계를 중요시 연구대상으로 삼고 의학실제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상응하는 이론의 틀을 세워 예방의학적인 관점과 생물 심리 사회의학모델을 비교하여 연구를 하였다[15]. 우주 운동의 자연법칙을 음양오행으로 설명이 되는데, 인체의 오장생리활동 역시 우주의 자연규율에 적응이 되어있다[16].

한의학에서의 도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精氣神의 순환을 통하여 인체의 생명력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東醫寶鑑, 按摩導引>에서는 "臞仙曰 閉目冥心坐 握固靜思神 叩齒三十六 兩手抱崑崙 左右鳴天鼓 二十四度聞 微擺撼天柱 赤龍攪水渾 待津液生而嚥之 漱津三十六 一口分三嚥 龍行虎自奔 閉氣搓手熱 背摩後精門 盡此一口氣"라 하여, 정기신의 끊임 없는 순행시키는 방법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赤龍(唾液)이라는 물체를 통하여 한 모금을 3번 나누어서 9번을 삼키고 이를 河車의 搬運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순행을 기준은 우주의 순행을 본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東醫寶鑑, 人心合天機>에서도 "仙經註曰 璇璣 斗也. 天以斗爲機 人以心爲機 心運於身中 猶斗運於天中也"라하여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북두칠성의 운행과 동일시하고 있다.

老子나 莊子에서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無爲'를 의미하며, <老子, 第二十五章>에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말하는 것이다[17]. 자연계와 진정으로 친근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타 생물과 자연과의 총합된 패턴의 관계에 있어서 패턴 상호간의 관계, 그것들과 우리들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과 전체와의 관계를 파악할수 있는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같이 도교적인 인간관은 세속적인 거부와 초월하는 것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연과 합일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생태계통 이론의 핵심은 생태의 평형이다. 이러한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억제와 상생을 통한 因과 結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周易>이나 <內經>사상에서는 고대에 풍부한 생태계의 평형사상이 있었다[18].

2) 氣의 관점에서 고찰

董仲舒는 음양가의 사상을 흡수하여 자기의 우주 模式論을 만들고, 天을 十端(天 地 陰 陽金 木 水 火 木 人)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天地之間에는 陰陽과 五行之氣로 충만한 것으로 보았다. 人과 天은 陰陽과 五行之氣로 상호 精神感應으로 나타나고, 氣는 天과 人의 感應의 중개역활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19].

氣는 정신과 물질, 마음과 육체, 내면적 세계와 외부의 세계 등 우리들의 사고를 규제하고있는 대립적인 이분법적 범주가 적용될수 없는 존재로서, 全一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토대다[20]. 인간을 內經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天의 氣가 地로 하강하고, 地의 氣으로 天에 상승하여 昇降이 만나는 것을 氣交라 부르며, 人은 그 氣交 중에 생존하는 것이므로, 人은 天地陰陽氣의 운동 변화 중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21]. 현대적인 시각으로 말하자면, 氣를 기르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생명체의 특유한 에너지로 보았는데, 氣의 움직임은 몸과 마음 심리작용과 생리작용의 양쪽에 관계하고[20], 정신과 물질, 마음과 육체 내면적 세계와 외부의 세계 등 우리들의 사고를 규제하고 있는 대립적인 이분법적 범위가 적용될수 없는 존재로써, 전일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토대이다[22].

실학적인 인간관은 기혈적인 존재로 자연에서 독립된 존재로 우주의 氣와 인간의 血氣를 엄격히 구분을 하였다. 혜강의 氣는 心性論的 색채가 완전히 탈색된 氣이며, 형이상학이 아닌 과학이

요 경험이다. 그의 우주논은 一身運化와 統民運化와 天地運化를 一統시키려는 비센샤프트로서의 우주론이다고 하였다[23]. <氣學>에서는 "身心之氣 得來於大氣之一勺 不見充塞之氣 必昧身心之氣多端疑惑 無限揣摩 或啓後人不訾之害 或做自己掣碍之端 反不及日用而不知者. 是以上古之俗 後世人不以爲玼累"라 하여, 身心의 氣는 大氣에서 그 일부를 얻어온 것이니, 우주에 가득차 있는 氣를 보지 못하면 심신의 氣에 어둡게 되어 여러 갈래로 일어나서, 끊없이 헤아리고 살펴보아도 때로는 후인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해를 가져오는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꺼리어 막히는 단서를 만들기도 하여, 도리어 날마다 쓰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보다도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24]. <氣測體義, 神氣通卷一, 體通>에서 "克塞天地 漬洽物體而聚而散者, 不聚不散者, 莫非氣也 我生之前 惟有天地之氣 我生之始 方有形體之氣 我沒之後 還是天地之氣---- 至於萬物之氣, 同禀於天地 函育于兩間 則可將其氣味聲色相通之機, 而洞悉其大略"이라 하였는데, 천지를 꽉 채우고 물체를 푹 젖어 있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나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이나 모든 氣 아닌 것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천지의 氣만이 있고, 내가 생길 때 비로소 형체의 氣가 생기며, 내가 죽은 뒤에는 도로 천지의 氣가 된다..... 만물의 氣도 사람과 한가지로 천지에서 氣와 質을 품수하여 천지 사이에서 함양 육성되는 것이라, 그 氣味와 聲色의 서로 통하는 기틀로 대강을 살피면 투철하게 알 수 있다[25]고 하였다.

氣는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이며, 氣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素問, 六節藏象論>에서,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이라 하여 氣의 조절이 잘되어야만이 정신도 잘 발현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생태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음을 한의학적으로는 氣의 형태로 표출이 된다. <素問, 擧痛論>에서 '怒則氣逆' '喜則氣和' '悲則氣消' '恐則氣不行' '思則氣結' '驚則氣亂' '寒則氣收' '熱則氣泄' '勞則氣耗' 로 마음의 병리적인 상태를 氣로 표현을 하였다. 외적인 기후의 변화 및 감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氣의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인간 스스로의 마음과 肉身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 못하면 병이라는 형태로 인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경고로 볼수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화합과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기마음대로 방종을 한 경우에 암이나 불치의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연과의 氣 교류를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인간의 심성은 자연과 멀리하고, 조작하고 인위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어, 본인 위주만을 생각하는 사상이 만연되고 있다. 현대에 well-being 바람이 불고있는데, 정의를 살펴보면 mind와 body의 문제를 다루고, 이 두가지는 전체(a sing whole)와 관계를 가져야 하며, 동양의학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를 기초로 한 대체의학적인 치료법에 기인한다고 하였다[26]. 그러나 원래 welling-being 본 의미는 퇴색이 되고, 단지 오래살고 본인이 추구하는 만족적인 삶을 위한것이라면, 이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본 욕심에서 출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인 만족감이 충족되어 질수가 없다. 자연과 합일되는 것, 一切同心, 慈悲, 仁, 無爲등의 정신적인 면이 우선이 되고 않고 단지 음식적으로 육식을 삼가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야채를 먹고, 외모나 장수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 역시 욕심에서 출발한 극도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이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肉身의 평안만을 추구하여, 자연을 일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역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자연스러운 조화 상태의 결과로 정신이나 몸 수명의 연장이 동반이 되는 것이다. 자연과 친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배재된 자연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양사상은 전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교류을 통하여 부차적으로 얻어

진 정신과 육신만이 진정한 weling-being의 의미인 것이다. 노르웨이의 철학자 Arne Naess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현상의 범위가 개인이나 가족, 또는 種의 경계마저 넘어서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심층생태학' 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고, 나는 이 용어가 '의존적 상호발생' 을 가리키는 데 적절한 현실적 지시어라는 것,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알았다. 심층생태학적 운동은 자아의 관념을 에고와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하고, 利己의 의미를 모든 생명의 복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고 한다[27]고 하였다.

심적인 이상 상태가 증가되어 병리적으로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육체적으로 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자연과의 유기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인간의 안정된 마음을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자연과의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련 방법을 통하여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연속으로 확장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격정적인 삶의 환희를 체험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자연의 내부와 자연의 외부가 단절 없이 연속되어 있음을 깨닭게 되면, 우리도 자연 세계에 깃들인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無爲의 기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28].

3. 생태계를 정화하는 방법논에 대한 고찰

불교는 창조자, 유일신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자기의존(self-reliance)과 개인 자신의 힘과 잠재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를 일종의 무신론으로 여기지만, 급진적인 물질주의자들과 종교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모든 생명체를 다 같은 중생이라고 하신 것은 세존의 위대한 발견이며 무상대각의 눈으로 우주의 진리를 비춰보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세존께서는 <金剛經 大乘正宗分 第三>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이라 하여, 출생방식, 형태의 유무, 생각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하시었다[30].

우주내 만유는 胎生, 卵生, 濕生, 化生, 有形의 것, 無形의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 등 모두가 생명체를 지니고 있으면서 상의적인 수수과정을 통해 연속적 변화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주의 법계에서는 별을 포함한 우주 만유는 生意를 가진 중생으로서 조화로운 연기법에 따라 진화해 가는 것이 불법의 근본 사상이다[31]고 하였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苦를 반드시 가지게 된다. 五蘊으로 구성된 나(我)라는 것을 내것으로 착각하여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五蘊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우리의 生은 五蘊 즉 色(몸, 물질)과 受(느낌) 想(인식, 心想) 行(처리과정) 識(인간존재의 알음알이)에 의하여 假合되어져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착각은 無明에 의하여 일어난다.

현상계의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사상과 함께 이러한 마음을 대상의 자취를 추구하는 동요스럽기 짝이 없는 것, 항상 번뇌에 얽매여서 윤회의 요인이 되고, 유식체계에서는 마음을 윤회의 기초가 되는 아뢰야식으로 받아들이며, 아뢰야식은 무한한 과거로부터 현상에 관계되는 마음에 대한 활동의 餘習을 축적하면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잠재의식이다 [32].

苦에 해당하는 인도 말은 dukkha인데, 이는 세상의 이치와 어긋남으로 인해 생겨나는 상실감 내지 불만족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차원적으로 어떤 우주론적 질서에서 나오는 그런 괴로움이지 단지 즐거움의 반대로서의 고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31].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으로, 고통의 원인은 業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붓다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할때는 원인을 발견해야하고, 원인이 제거되었을 때, 어떤 결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渴愛 또는 愛着임을 발견하였읍니다[33].

부처님이 인도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한 四聖諦(苦 集 滅 道)에서 존재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苦,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集, 괴로움을 없애는 해탈의 滅,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인 道가

있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에는 八正道가 있다. 에는 원인이 있다는 하기 때문에

불교사상의 본질은 비실체적(空) 상호의존(緣起)과 그로 인한 상호존중(慈悲)에 있으며, 그런 상호의존성으로 통해 자유롭게 성립된 세계를 法界라고 한다. 이 처름 상호 존중이기에, 불교는 일체 중생에 대한 비폭력(不殺生)과 생명해방(放生)을 지향한다[34].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가 있다면, 인간으로 인하여 자연의 생태학 순환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八正道는 원래 인간이 열반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를 잘 지키며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 부차적으로 생태학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면 자연의 상태학을 내몸과 같이 보호하고 가꾸어 갈 것이다. 八正道는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이다. 팔정도를 생태학에 적용한 것을 살펴보면, 正見은 사호의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正思는 생태학에 대해 해를 끼치니 않는다는 생각, 正語은 집단의 탐욕을 위해서 기만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正業은 해를 끼치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것, 正命은 바른 생활이나 생태계의 질서에 합당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正精進은 생태학의 해악을 없애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것, 正念은 바른 기억으로 생태학의 질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떠 올린다는 의미, 正定은 바른 집중으로 명상의 통찰을 통하여 탐욕 집착과 아집의 분별된 마음을 가라 앉히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35]

깨침은 行佛性의 실현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성개현이고 동시에 자연의 법성구현이다. 인간이 깃들어 살고있는 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환경은 인간에게 있어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으로부터 대표되는 환경은 자신의 깨침이 외부에 실현된 존재양상이고 자기는 깨침이 갈무리되어 있는 우주의 자기정체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적인 인간이고 환경은 인간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환경속에서 살아가면서 환경을 반영하는 주체로서의 존재라는 뜻이고, 환경은 단순히 자연으로서의 속성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발과 보존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어디까지나 그 자연적인 본질과 속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과 환경은 서로 조화를 통하지 않고는 그 완전성이 불가능하다.... 조화는 다름 아닌 깨침의 빛으로 드러난다. 깨침은 조화와 무집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36].

<大智度論>에서는 인간은 정신적으로 이상적인 평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안과 번뇌에 쌓이게 되는 이유를 ① 착한 마음이 엷거나 악한 습성에 빠짐 ② 제행무상의 도리를 바로 인지하지 못함 ③ 죽음에 대해 바로 관하지 못함 ④ 세계의 공함을 관하지 못함 ⑤ 수명에 애착을 함 ⑥ 불법에서 즐거움을 얻어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하려 하는 마음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부처님이 <華嚴經>에서 "菩提樹下 初成正覺 歎曰 奇哉奇哉 一切衆生 皆有如來智慧德相 以分別妄想而不能證得"이라 하였는데, 성철스님은 이를 요약하기를 부처님이 스스로 바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보니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중생 노릇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였다[37].

노자가 속나(德)의 삶을 낱낱이 밝힌 것이 삼독(탐진치)을 극복하는 三寶이다. 三寶인 慈는 사랑으로 貪을 이기고, 儉은 금욕으로 물자의 정력을 아껴 痴를 이기며, 不敢爲天下先은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瞋을 이긴 것이다. 이 처름 도덕은 사람에게 삶을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귀중한 것이다[38].

이와같은 불교적인 무아를 깨닭아서, 우주와 인간의 관계가 연기에 의한 철저한 인과법칙을 결과에 의하여 나타남으로 남과 내가 다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생물 역시 불성이 있으므로 부처님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 서로 공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의학의 사상도 천인지 삼재의 관계는 氣를 매개체로 끊임없는 순환을 통하여 주고 출입이 진행되고 있다. 인간에게 병이 나는 경우에 먼저 기의 순행에 이상이 오고, 처음에 인체가 그 병을 대응하도록 경고를 계속 보

낸다. 이를 무시하는 경우는 인체내의 외부 병균에 대한 방어시스템인 면역체계가 무너져 다시는 치유할수 없는 불치의 병이 생기게 된다. 이를 공간적으로 자연계에 확대하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마음의 욕심을 수렴하고 절제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수행이나, 기타 종교적인 수행을 통하여 범 국민적으로 하루 빨리 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해 나아가야 한다.

Ⅲ. 결 론

1. 자연 생태를 해치는 결정적인 소인은 인간이며,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심성(마음)은 八正道를 통한 꾸준한 修行과 일반인이 生態學에 대한 이해 및 生態學的 心性開發을 하여야 한다.

2.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天 地는 氣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循環을 하고, 精 氣 神으로 순환하여 우주와 공존하여 일체(天人合一)를 이룬다.

3. Well-being은 철저한 인간 위주의 관점이며, 생태학 관점에 위배되는 것으로 mind-body(心神)의 건강은 생태학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롭게 사는 가운데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4. 불교의 자비관이나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나 자연 모두에게 불심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자연의 생태 또는 사회 정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5. 동양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된 불교나 한의학은 心(마음)를 중요시하며, 수행이나 명상을 통한 인간의 마음 정화가 생태학 보존에 가장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1) 정인석, 트랜스퍼스날 생태학, 서울, 대운출판사, 2000, 43
2) 김우호, 반찬국, 홍원식, 경희한의대논문집, 제10권, 1987, 350-351
3) 박성범,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한의과대학원, 1994
4) 김호,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논, 서울대학교대학원, 2000
5) 이경영 등 교석, 비급천금요방,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8, 6
6) 정우열 역, 중외의학문화교류사, 전파과학사, 1997, 180
7) 高文鑄 校注, 外台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90
8)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공역,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일중사, 2003, 385
9) 佛說佛醫經, 大藏經 17, 793a
10) 圓覺經, 大藏經 17, 914b
11) 김무애 주석, 마가지관 대지관좌선법, 운주사, 1995, 230-231
12) 전명성 역, 구사론대강, 불광출판사, 1992, 24
13) 곽신환, 주역의 이해, 서광사, 1990. 15
14) 匡調元, 인체체질학(중의학개성화진료원리),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2003, 45-48
15) 陳淮民, 內經天地人時醫學模式初探, 陝西中醫 9期, 1996, 409-410
16) 郭戊英, 中醫數學病理學, 상해, 상해과학보급출판사, 1998, 125-126
17) 정세권, 장자기화논, 臺北, 대만학생서국, 1993, 59
18) 楊力, 주역여중의학, 북경, 북경과학기술출판사, 1990, 586
19) 周桂鈿, 동중서평전, 廣西, 광서교육출판사, 1992, 17
20) 최영진, 주역의 현대적 조명(정신과 물질의 문제에 관한 역학적 이해), 범양사, 1992, 398
21) 김완희 외3인, 한의학개론, 성보사, 1982,

79
22) 孫炳圭 譯, 氣와 인간과학, 여강출판사, 1992, 25
23) 김용옥 역주, 동경대전, 통나무, 2004, 105-106
24) 최한기 지음, 손병욱 역주, 기학, 통나무, 2004, 38
25) 최한기, 기측체의(1), 민족문화추진회, 1985, 42
26) Eric chaline, Zen and the art of wellbeing, Sources books, 2001, 7
27) 이중표 역, 불교와 일반 시스템이론, 불교시대사, 2004, 14-15
28) Seed John, Pat Fleming, Joanna Macy & Arne Naess, Thinking Like a Mountain: Toward a council of All Beings, Philadelpia:New Socity Publishers, 1988, 16(재인용)
29) 조원희 譯, 더 오래된 과학, 여시아문, 2003, 31
30) 李國柱, 金剛經과 科學, 敎林, 1983, 18
31) 이시우, 별을 보면 법을 보고 법을 알면 별을 안다, 신구문화사, 2002, 187(재인용)
32) 이만 譯, 인식과 초월, 민족사, 1993, 34, 40
33) 정원 옮김, 위빠사나 수행, 보리수선원, 2002, 15
34) 김종욱, 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사성제적 접근, 불교평논 19호
35) 김종욱, 불교와 생태학, 그 만남의 단서, 한국불교학 제 34집, 2003, 293-318
36) 목정배, 성철스님 열반10주기 추모 국제 학술대회, 백련불교문화재단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깨침의 의미와 功用, 2003, 25
37) 백련선서간행회, 백일법문(상), 臧經閣, 불기 2537, 28.
38) 노자, 박영호 譯著, 두레, 서울, 1998, 11